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만공 스님(3)

만공, 적멸궁은 어느곳에 건립되었습니까
해암, 나의 콧구멍 속에 있느니라

어느 해 가야산 해인사에서 만공(滿空:1871~1946) 선사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이랬다.

“시방세계가 적멸궁(寂滅宮) 속에 건립되었다 하는데, 그 적멸궁은 어느 곳에 건립되었습니까?”

만공 선사가 답했다. “시방세계는 적멸궁에 건립되었으나, 적멸궁은 나의 콧구멍 속에 있느니라.”

다시 편지가 왔다. “적멸궁은 선사의 콧구멍 속에 건립되었거니와, 선사의 콧구멍은 어느 곳에 건립되었나 이까? 저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만공 선사가 답했다. “일찍이 가야산엔 적멸궁만 있다더니, 오늘에 와서 다시 보니 과연 그렇구나.”

‘적멸한 궁전(寂滅宮)은 번뇌 없는 해탈의 경지(境界)’, ‘미혹(迷惑)과 집착을 벗어난 경지(境界)’, ‘적멸한 궁전(寂滅宮)은 번뇌 없는 해탈의 경지(境界)’, ‘미혹(迷惑)과 집착을 벗어난 경지(境界)’ 이란 미혹(迷惑)과 집착을 벗어난 경지(境界)를 뜻한다. 그리고 ‘콧구멍(鼻孔)’이란 말은 불성(佛性), 본래면목(本來面目), 본분(本分), 본각(本覺)을 상징한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날 때 코가 먼저 생기고, 오관 중에서도 콧구멍이 먼저 뚫린다고 본 데서 유래했다.

해암의 질문에 만공 선사는 시방세계가 적멸궁에 건립되었으며, 적멸궁은 다시 당신의 본래면목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각자의 콧구멍 즉, 진여자성(眞如自性)에서 미혹과 깨달음,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주체와 객체 등 일체 만법이 건립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콧구멍, 즉 본래면목은 다시 어느 곳에 건립되었을까? 이는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공안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스님이 조주(778~897) 스님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

간다고 합니까만,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나는 청주에 있을 때 벽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었지” 라고 답한 것이 바로 이 공안이다.

이와 관련, 만공 스님은 “가야산에 적멸궁만 있다”라는 대답을 통해, 진여자성(하나이)이 가야산이란 적멸궁 즉, 만법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一)는 진여인 마음의 본체를 가리킨다. 만법은 일심(一心)의 인식과 판단으로 성립되는 심법(心法)이기에, 만법은 근원적인 깨달음의 경지인 일심으로 되돌아가고, 일심은 다시 만법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화엄경> 등 대승경전의 “삼계는 오직 마음(三界唯一心)이며, 마음 밖에 법(法)이 없다(心外無別法)”, “일체의 모

든 것은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一切唯心造)”, “만법은 일심(一心)이며 일심이 만법이다”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만법은 심법(心法)인 것이다.

이와 관련 승조 법사는 <조론>에서 “지인(至人)의 마음은 텅 비고 환하여 형상이 없다. 그리하여 내가 짓지 않은 만물이란 없다(萬物無非我造). 만물과 화합함으로써 자기를 이룬 자는 성인일 뿐이다”고 하였다. <조론>을 해설한 감산 선사는 “만일 삼계의 만법이 마음에서 나타난 것일 뿐임을 요달할 수만 있다면 만법마다 모두가 자기에게로 귀납된다. 이를 성인이 열반을 증득했다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만법을 버리고 열반을 찾거나, 본래면목을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감산 선사의 ‘만법 그대로가 하나의 진여(萬法一眞)’라고 한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서, 이 공안을 참구해 보자.

김성우 객원기자

40년 ‘간경 수행’... 곳곳한 외길

居士禪의 리더들 ⑤

중앙승가대 **송찬우** 교수



“불교란 한 마디로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부처니, 마음부처의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경전 강의의 권위자인 송찬우(56)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 말을 논증하기 위해 팔만대장경이 벌어졌다고 본다. ‘네가 부처다’ 하는 가르침을 확신하여 믿고 실천하면 되는데, 믿지 않으니 이를 확신시키기 위해 부처님께서 이 법문, 저 법문을 하계된 것이 팔만대장경이란 것이다. “심법(心法)의 이치를 깨우치면 곧바로 대해됩니다. 유식(唯識)을 배우는 것도 네 마음을 허망한 식(識)으로 쓰지 말고, 식을 타파하여 본래마음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어록은 오로지 “마음의 이치를 곧장 가리키면서(直指) 네 마음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법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통주사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동구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tar.com
E-mail: heegyun@avata21.com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동원학원에서 송심력(熊十力)의 <신유식론(新唯識論)>을 강의하는 송 교수는 불교 교리와 수행의 정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식론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성의 공(空)을 주장하는 성종(性宗)인 ‘종론’과 현상세계의 여실한 모습을 밝힌 상종(相宗)인 ‘유식론’을 모르고서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어서, 대승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은래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선불해를 정도로 중국의 자부심이었던 <신유식론>은 풍우란 등 중국철학의 대가를 길러낸 대학자인 송심력이 중국 및 서양 철학 등을 결집하여 불교의 유식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호법(護法)의 유식 해설에 문제점을 느끼고 유식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송심력은 지나치게 복잡한 <성유식론>의 요점을 드러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으로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다시피 유식학은 불교학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분야이다. ‘삼계유식(三界唯識)의 이치를 깨우치면 곧바로 대해됩니다. 유식(唯識)을 배우는 것도 네 마음을 허망한 식(識)으로 쓰지 말고, 식을 타파하여 본래마음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어록은 오로지 “마음의 이치를 곧장 가리키면서(直指) 네 마음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법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과 유식은 과연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일까? “수행이란 사실 식(識), 즉 망상을 타파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호랑이나 범인을 잡으려면 그 소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만 그것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론은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식(識), 즉 분별의식이 움직인다고 본다. 만법은 중생의 8식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확실히 대오한 육조 선사바람에 움직이는 것임을 보고,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분별심이 움직이는 것이다”고 말한 것이 한 예다. 이 세계가 오로지 식의 분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만법유식’의 이치를 모르면 선불교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세에 불교계 입문 후 ‘禪·敎 수행’ 정진

‘벽암록’ ‘종경록’ 등 선어록 23권 완역

유식론>은 풍우란 등 중국철학의 대가를 길러낸 대학자인 송심력이 중국 및 서양 철학 등을 결집하여 불교의 유식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호법(護法)의 유식 해설에 문제점을 느끼고 유식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송심력은 지나치게 복잡한 <성유식론>의 요점을 드러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으로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다시피 유식학은 불교학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분야이다. ‘삼계유식(三界唯識)의 이치를 깨우치면 곧바로 대해됩니다. 유식(唯識)을 배우는 것도 네 마음을 허망한 식(識)으로 쓰지 말고, 식을 타파하여 본래마음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어록은 오로지 “마음의 이치를 곧장 가리키면서(直指) 네 마음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법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과 유식은 과연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일까? “수행이란 사실 식(識), 즉 망상을 타파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호랑이나 범인을 잡으려면 그 소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만 그것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론은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식(識), 즉 분별의식이 움직인다고 본다. 만법은 중생의 8식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확실히 대오한 육조 선사바람에 움직이는 것임을 보고,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분별심이 움직이는 것이다”고 말한 것이 한 예다. 이 세계가 오로지 식의 분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만법유식’의 이치를 모르면 선불교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식론>은 풍우란 등 중국철학의 대가를 길러낸 대학자인 송심력이 중국 및 서양 철학 등을 결집하여 불교의 유식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호법(護法)의 유식 해설에 문제점을 느끼고 유식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송심력은 지나치게 복잡한 <성유식론>의 요점을 드러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으로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다시피 유식학은 불교학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분야이다. ‘삼계유식(三界唯識)의 이치를 깨우치면 곧바로 대해됩니다. 유식(唯識)을 배우는 것도 네 마음을 허망한 식(識)으로 쓰지 말고, 식을 타파하여 본래마음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어록은 오로지 “마음의 이치를 곧장 가리키면서(直指) 네 마음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법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과 유식은 과연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일까? “수행이란 사실 식(識), 즉 망상을 타파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호랑이나 범인을 잡으려면 그 소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만 그것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론>은 풍우란 등 중국철학의 대가를 길러낸 대학자인 송심력이 중국 및 서양 철학 등을 결집하여 불교의 유식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호법(護法)의 유식 해설에 문제점을 느끼고 유식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송심력은 지나치게 복잡한 <성유식론>의 요점을 드러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으로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다시피 유식학은 불교학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분야이다. ‘삼계유식(三界唯識)의 이치를 깨우치면 곧바로 대해됩니다. 유식(唯識)을 배우는 것도 네 마음을 허망한 식(識)으로 쓰지 말고, 식을 타파하여 본래마음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어록은 오로지 “마음의 이치를 곧장 가리키면서(直指) 네 마음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법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식론>은 풍우란 등 중국철학의 대가를 길러낸 대학자인 송심력이 중국 및 서양 철학 등을 결집하여 불교의 유식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호법(護法)의 유식 해설에 문제점을 느끼고 유식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송심력은 지나치게 복잡한 <성유식론>의 요점을 드러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으로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다시피 유식학은 불교학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분야이다. ‘삼계유식(三界唯識)의 이치를 깨우치면 곧바로 대해됩니다. 유식(唯識)을 배우는 것도 네 마음을 허망한 식(識)으로 쓰지 말고, 식을 타파하여 본래마음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어록은 오로지 “마음의 이치를 곧장 가리키면서(直指) 네 마음 이치에 걸맞게 살라”는 법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행개시판

- 시인선원 한 달 안거** 안거선원 안거선원 원은 한 달 안거 수행자를 수시 모집한다. 새벽 3시 아침 예불부터 저녁 9시까지 좌선과 좌선 전사 법문 듣기 등으로 자율적인 안거이다. (032672-6061~4)
- 시마다 수행반 개설**-서울 열선원은 6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시마다 수행반을 개설한다. 미얀마에서 파옥 스님이 지도 아래 수행한 정명 스님이 함께 한다. (02386-4755)
- 아래선원 생활선 공부모임**-부산 아래선원은 황강구 선원장과 함께 매주 토요일 참선 정진, 일요일 예불 및 법담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 경전 공부, 수요일 법담, 목요일 참선 및 명상 공부도 병행 (051362-0339)
- 직장인을 위한 우뻘사나 수행-한국우뻘사나** 선원은 7월 4일부터 직장인을 위한 '12년'과 우뻘사나 수행 자부반을 개강한다. 모원 법사나 강의 좌선, 명담을 이끈다. (026512-525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s@hanmail.net

외국 법당인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외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유유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 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세계 최대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대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살바위 건칠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살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살바위)이라 불렀으며, 비유에서 원적의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기구의 대명사 - 덕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옥성)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유	1200×600×300(小)	300,000	160,000
중	1300×770×300(中)	400,000	200,000
대	1500×770×300(大)	500,000	260,000
특대	1800×770×300(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옥성직판은 원천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직업으로 제작.
-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옥성(옥성목) 사용
- ▶ 시공: 치밀한 절삭, 소파대용 위치,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책상상 등
- ▶ 시공법: 물결레임이 가능하여 주기적으로 기름 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이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문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